

全國民生活的

科學化運動의 效果的 展開方向

- ...全國民生活...○
- ...의 科學化運...○
- ...動이 새마을運...○
- ...動 第2段階의 點火...○
- ...라는 次元에서 代代...○
- ...적으로 전개되고 있다...○
- ... 전국 初·中·高等學校...○
- ...의 科學關係教科書 내용 개...○
- ...편을 비롯 主婦를 위한 生活...○
- ...科學知識보급은 물론 營農技術...○
- ...보급에 이르기까지 多樣하게 추진...○
- ...하고 있으며 또 科學技術人들도 이...○
- ...運動에 能動的으로 參與하고 있다. ...○
- ... 이와 때를 같이하여 科學技術人的 總...○
- ...集結體인 韓國科學技術團體總聯合會등 관...○
- ...런 단체에서도 全國民 生活的 科學化運動...○
- ...계획을 수립하고 이미 이의 實踐에 들...○
- ...어갔다. ...○
- ... 그래서 本誌는 生産力증대는 물론...○
- ...非合理的인 意識構造와 生活慣習...○
- ...의 一大革新이 期待되는 全國民...○
- ...生活的 科學化運動의 效果的...○
- ...인 推進方向을 알아보기 위...○
- ...해 學界· 言論界· 經濟...○
- ...界 著名人士와 文人·...○
- ...會社員 그리고 主婦...○
- ...를 紙上招待, 그...○
- ...들의 이야기를 들...○
- ...어 보기로 했...○
- ...다. (編輯者...○
- ...註) ...○

# 痼疾화된 思考의 革命이 急先務

科學的으로 處理하는 技術과 習慣을 익히자



安 秉 煜

(崇田大學校 教授)

◎ 合理的 힘에 있어 能率과 效果 크다.

인간은 생각하는대로 행동한다. 思考가 생활과 行動을 결정한다.

迷信的 사고를 하면 미신적 행동을 하고 獨斷的 사고를 하면 독단적 행동을 한다.

科學的 사고를 하면 과학적 행동을 하고 合理的 사고를 하면 합리적 행동을 한다.

그러므로 인간의 생활과 행동의 變化를 일으키려면 먼저 우리의 思考의 革命과 意識構造의 變化를 일으켜야 한다.

과학화운동의 始發點은 우리 사고의 혁명에 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사고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생활이 바뀌고 생활이 바뀌면 사회가 바뀐다.

세상에 생각을 바꾼다는 것처럼 힘든 일이 없다. 의식구조의 改造와 사고의 혁명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왜냐, 인간은 偏見의 동물이요, 我執의 노예요, 獨斷의 덩어리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習慣화된 思考方式을 갖는다. 저마다 사고의 어떤 버릇이 있다.

이것을 깨뜨리는 것이 사고의 혁명이다. 사고의 혁명은 나의 편견을 없애고, 아집을 포기하고 독단적 생각을 버리는 것이다.

어떤 개인만이 습관화된 사고방식을 갖는 것은 아니다. 한 민족, 한 사회에 痼疾화된 사고방식이 있다.

사회가 과학화되려면 모든 국민들의 오랫동안 버릇이 되었고 고질화가 된 낡은 사고방식을 개조해야 한다.

세상에 習慣의 改造처럼 어려운 일이 없다. 우리는 수천년 동안 살아오면서 고질화된 사고방식이 생겼다.

이 낡은 사고방식을 버리고 새로운 과학적 사고방식을 갖게 하는 것이 과학화운동의 根本이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고질화된 사고방식을 갖는가?

인간의 운명이나 吉凶禍福은 자기의 自主의 能力과 노력으로 만들어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의 四柱八字에 의해서 이미 결정되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宿命論的 人生觀과 사고방식이 많은 한국인의 意識을 지배한다.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의 노예가 되어 짐을 치고 觀相을 보고 土亭비결에 흥미를 가지고 印鑑錄에 매력을 갖고 運數思想에 지배되고 諦念하기를 잘하고 소극주의와 사머니즘사상에 빠지기를 쉽다.

이것은 非科學的 사고방식이다. 우리는 먼저 이런 사고방식에서 해방되어야 한다.

이런 사고방식은 대체로 봉건적 農業社會의

산물이다. 농사는 개인의 노력보다도 하늘의 지배를 많이 받는다.

농사는 비가 제때에 잘 와야 되고, 가뭄이 들지 않아야 한다.

인간의 피땀을 흘린 농사도 洪水와 旱災 앞에는 無로 돌아간다.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의 無力과 自然의 偉力을 느끼고 하늘을 우러러보고 他力主義의 宿命論에 빠지기 쉽다.

商工業은 하늘의 지배를 별로 받지 않는다. 그래서 농업사회에는 타력주의적 숙명론의 사고방식이 강하고 상공업사회에는 자유로운 自力主義的 努力論의 사고방식이 강하다.

우리사회는 高度産業社會를 향하여 일로 매진하고 있다. 농업 인구가 점점 줄고 상공업인구가 증가한다.

이런 사회적 趨勢와 더불어 우리 국민들의 사고방식이 타력주의적 숙명론에서 자력주의적 노력론으로 서서히 변하고 있다.

이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다.

### ◎ 科學은 人間의 가장 偉大한 武器

사고방식의 혁명은 教育의 힘으로 하는 도리밖에 없다. 우리는 교육을 통해서 과학적 사고방식과 행동을 배우고 익히고 體質化시키고 생활화하고 습관화해야 한다.

과학교육이 보급되면 보급될 수록 우리의 困窮이 되었고 고질화가 된 낡은 사고방식과 행동은 점점 없어질 것이다. 그러면 과학적 사고는 어떤 것이냐.

그것은 合理的 사고요, 論理的 사고요, 實證的 사고요, 自主的 사고요, 創造的 사고요, 客觀的 사고다.

과학적 사고의 核心은 합리적 사고다. 그러면 합리적 사고란 무엇이나.

이 세상의 모든 存在와 사물에는 어떤 原理原則이 있고 不變의 秩序가 있고, 일정한 法則이 있다.

이것을 우리는 理라고 일컫는다. 또는 眞理라고도 한다.

물건에는 物理가 있고, 생물에는 生理가 있고 땅에는 地理가 있고, 법에는 法理가 있고, 도덕에는 道理가 있고, 수에는 數理가 있고, 하늘에는 天理가 있고 사물에는 事理가 있다.

理는 不變의 秩序요, 일정한 原理원칙이다. 그 理를 不變연구하는 것이 학문이요 科學이다.

合理的이란 말은 事理에 맞게 생각하고 행동하고 관리하고 경영하고 일을 처리하는 것이다.

우리는 모든 사물을 다룰 때에 事理에 맞게 해야 한다. 사리는 사물의 原理원칙이다.

사리에 맞지 않는 것이 不合理的다.

무릇 합리는 힘이 있고 生命力이 길고, 能率과 효과가 크다. 그러나 불합리는 힘이 없고 생명력이 약하고 능률과 효과가 없다.

합리주의를 영어로 레쇼날리즘(Rationalism)이라고 한다. 이 말은 라틴어의 라티오(Ratis)에서 유래한다. 라티오는 計算한다는 뜻이다. 맑은 理性을 가지고 냉철하게 계산할 줄 아는 것이 합리주의다.

이성의 기능은 思考요, 이성의 質은 公正이요 이성의 특색은 創造力에 있다. 이성은 참과 거짓, 眞理와 虛僞를 구별하는 능력이요, 사물의 大小輕重과 先後本末을 바로 판단하는 능력이다

이성은 놀라운 創造力을 갖는다. 과학은 인간의 창조적 이성의 產物이다. 우리는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과학적으로 사물을 처리하는 훈련과 습관을 길러야 한다.

현대의 문명은 科學的 知性的 산물이다. 과학은 인간이 갖는 가장 위대한 武器요, 가장 놀라운 道具다. 과학을 갖는다는 것은 위대한 무기와 도구를 갖는다는 것이요. 과학을 갖지 못한다는 것은 위대한 무기와 도구를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또한 알아야 한다.

과학이 만능이 아니라는 것이다.

과학을 人類의 幸福과 사회의 발전을 위하여 옳게 쓰려면, 옳바른 도덕과 良心과 가치관과 철학을 가져야 한다.

과학은 偉大하다. 그러나 결코 만능은 아니다. 우리는 科學的 知性和 동시에 倫理的 德성을 가져야 한다.

이 양자가 결비될 때 위대한 문명의 꽃이 필 수 있다. 우리는 모든 것을 과학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처리하는 기술과 습관을 익혀야 하는 동시에 과학을 옳바로 사용하는 智慧와 良心을 가져야 한다.

# 「科學공부를 위한 科學」 止揚해야

## 우리 生活週邊 體係의 再確立기요



尹 壬 述

〈韓國新聞研究所長〉

### ◎ 煉炭갈아 넣는 것부터 科學的이어야

나는 어느해 겨울에 煉炭을 갈아넣는 것을 日課로 정한 일이 있었다. 종전에 방마다 갈아 넣던 것을 다소 편리하게 한다고 해서 연탄보일러방으로 개조를 했기 때문에 한 곳에서만 갈면 되니까 내가 말았던 것이다.

연탄갈기를 해보면 우리들 서민의 생활이 얼마나 非科學的이고 非經濟的인 것인가를 절감할 수가 있다.

연탄을 쌓아놓은 곳이 깨끗해질 수가 없다는 것도 당연하다. 그 부스러기와 탄재가 깨어져 흩어져 물로 씻어내려면 연탄이 水害를 입어 허물어지고 쓸면 먼지투성이다. 이런 것쯤이야 문제가 아니지만 한개의 煉炭에 熱量이 얼마고 크기가 얼마로 되어있기는 하나 그것이 제대로 규격화가 못되어 있는 탓인지 어떤 것은 깨끗이 잘타서 계산한 시간대로 유지가 되지만 어떤 것은 반도 타지않고 도중에 꺼져버려 낭패를 당하게 한다.

그런 때문에 하나를 갈고나면 자신있게 몇시간동안 불이 유지된다는 안심할 수가 없다. 늘 불안하게 신경을 써야 한다. 새벽에 갈아넣어 놓고 出勤을 하고 나서도 그것이 혹시 꺼져 지나 않았나 하는 기우심이 머리 속에서 사라지

지 않는다.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 자신이 없으면 職場에서 집으로 전화를 걸어 불이 살아있는가를 재확인까지 하게 된다.

보일러식 방이 아니고 재래식이라면 날씨가 低氣壓일 때는 개스에 대한 신경도 겹치게 될 것이다.

연탄 갈아 넣는 일 정도를 가지고 무슨 그리 큰 문제라고 이렇게 자질구레하게 신경을 쓰느냐 할지 모르나 직접 한 겨울 동안을 해보면 밖에 나와 事務처리 하는 것 몇 곱절 신경을 안 쓸 수 없다.

밤중에 불이 꺼지더라도 해서 두어번 지하실에 드나들다보면 잠을 설치고 냉방에서 떨고 나면 화까지 치밀어 다음날 출근에도 지장을 준다.

우리나라에 七百萬가구가 있다고 치면 일부기름난방과 농촌을 제외한 약 四百萬가구정도가 연탄으로 추위를 막게 된다. 한가구에 한사람씩을 쳐도 四百萬명이 이러한 신경전을 하면서 그날그날을 보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온다.

이 四百萬名이 이에 소비되는 시간과 정신쓰는 것을 가지고 다른 방면에 일을 한다든지 연구를 한다면 어떤 커다란 성과를 가져올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을 해 볼 수 있다.

이같은 非科學的인 생활이 어디 있을까 하고 자탄을 해보기도 하지만 문제는 이러한 자탄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것을 극복해야 할 때가 와

야 하고 그때가 바로 지금이라야 하겠다.

배추한포기에 千원을 상회한다고 해서 배추만 많이 심은 농민이 김장철에 들어서는 百원을 채 못받아 지독한 손해를 보아 울상이 되었던 사실은 야채류의 수급계획이 어딘가 非科學적이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되며 고추가 한근에 몇 千원을 한다고 해서 外國 것을 수입한 것까지는 좋았지만 요즘은 수입고추의 인기가 폭락이 되었다는 것이며 外國의 고기를 수입한 덕분에 양계업자가 도산지경이라는 보도를 보고 있으면 非科學적인 계획이 그 원인이 아닌가를 생각할 수가 있다.

최근에는 교통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동차에 안전 벨트를 달고 있다. 이것도 일부업자가 단 것은 그 硬度가 규격대로 되어 있지않아 壓力에 지탱하지를 못하고 위험부담을 안겨주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들의 주변에는 이렇게 크고 작은 科學적인 현상에 파생되는 非科學적인 결과들이 너무나 많다.

각설하고 우리나라 국민학교에서 부터 高等學校까지의 數學공부는 어느 나라 못지않게 교과서 자체도 어렵기도 하고 착실하다고 해서 과연 일까. 학교공부도 모자라 과외공부까지 하는 관국이니 이위에 더할 수 없을 것이다.

### ◎ 理論에 치우친 學校敎課내용 改編을

그런데 학교밖에 있어서의 사회생활면은 학교 안에서 공부한만큼 數學적으로 科學化가 잘되고 있는가를 의심케 된다.

학교에서 배운것은 生活보다는 理論에 치우치고 그야말로 「科學공부를 위한 科學」에 중점이 두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을 것 같다.

일상주변에서 우리가 겪고있는 科學적인 產品들이 非科學적인 결과를 낳고 그럼으로써 겪는 被害가 다방면에 파급되고 있는 이때 生活의 科學化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이제 不足한 실정이다.

사소한 연탄갈아 넣은 경험을 예로 들어보았지만 어떤 것이던 현상에 대한 原因이 科學적으로 규명이 되어 시정이 돼야 하겠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非科學적인 결과들이 철저히 규명이 안되고 있는데는 우리의 科學實力이 따라가지 못한다기보다는 科學의 生活化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에 원인이 대부분이 있을 것이다.

일정한 목적과 方法에 의거하여 여러 방면에 그 원리를 연구하여 하나의 체계를 세우는 것이 科學이라면 우리의 생활주변은 科學이전에 체계 자체가 아직 정확하지 못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품게 된다.

왜냐하면 어떤 生產品 등에 非科學적인 현상이 나타났다고 할 때 그것은 生産 한사람들의 책임도 크지만 그런 生產品을 지도하고 감독하는 체계에서부터 科學적이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모르는 것을 아는 것도 科學이겠지만 알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는 것은 마음부터가 非科學의이라고 볼 수 있다.

非科學의이라는 것은 곧 科學을 生活化하지 않는 것이라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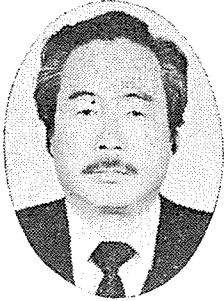
우리는 지금 中進國際列에 올라섰다. 中進國에서 先進國으로 다시 올라서려면 科學의 生活化에서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국민 하나하나가 科學의 生活化를 위해 邁進할 수 있도록 새로운 운동이 필요하다.

특히 매스미디어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그 책임의 무거움을 절감하지 않을 수 없다.

# 方法의 探究가 生活의 科學化

## 生活의 科學化는 生活의 藝術化와 一致



李 炳 注

<小 說 家>

### ◎ 그날 그날을 創造해가며 살아가도록

東洋이 후진적인 西洋으로 밖에 될 수 없었던 가장 큰 이유가 科學에 있다는 것은 두말 할 나위가 없다. 이것은 곧 野蠻과 文明을 구별하는 이정표적인 것이기도 하다. 理想的인 생활이 과학만으로 가능한 건 아니지만 과학없는 이상적인 생활을 꿈꾸어 볼 수가 없다. 드디어 오늘의 세계를 둘러볼 때 勝利는 과학에 있어서의 승리로 나타내고 敗北는 과학에 있어서의 패배로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과학의 중대성을 강조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얘기가 되며 하나하나 한 것으로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처지는 과학의 혜택을 인식하는 정도로는 되어 있으나 부학적 생활을 하고 있다는 정도는 되고 있지 않다. 쉽게 말해서 과학이 우리들의 몸에 배어 있지 않은 것이다. 교육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과학의 成果를 가르치기는 하되 과학하는 마음을 익히는 노력에 있어선 부족한 것 같다.

물론 과학의 성과를 통해서만이 과학하는 마음을 익힐 수 있는 것이지만 과학의 교육은 어디까지나 과학하는 마음을 가꾸고 기르는데 그 목적이 있어야 할 줄 믿는다. 과학하는 마음이란 사물을 과학적으로 보고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과학적으로 변경해 나가려는 習性和 意慾을 말한다.

사물을 과학적으로 본다는 것은 사물을 原因과 結果로 분석될 수 있는 현상으로 본다는 뜻이다. 과학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은 大砲 소리는 아무리 커도 연습하는 소리이니 별 것이 없고, 모기소리는 아무리 작아도 증대시켜야 한다는

식으로 이해하는 것을 말한다. 과학적으로 변경해 나간다는 것은 나타난 결과에만 사로잡히지 말고 그 근원을 찾아 원인적으로 수정하고 또는 변경해야 한다는 뜻으로 된다. 말하자면 우리의 생활자체를 科學化해야 된다는 뜻이다.

생활의 과학화라고 할 때 앞서 인식해야 할 것은 우리의 모든 생활이 원하건 원하지 않건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의 육체는 生理法則에 의해 서 있고 우리의 岀居는 역학과 건축법칙에 의해 서 있고 그 밖의 모든 환경은 각각 그 자연의 법칙에 의거해 있다.

이럴 때 새삼스럽게 생활의 과학화를 들먹일 필요가 없다. 그러나 생활의 과학화라고 할 때는 과학적 법칙에 수동적으로만 지배되어 있을 것이 아니라 과학적인 법칙을 能動的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뜻으로 된다. 예를 들면 우리의 건강을 보다 발달하게 하기 위해서 생리법칙을 어떻게 활용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거를 보다 快適하기 위해서 주어진 조건을 어떻게 하면 가장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그 밖의 모든 환경조건을 어떻게 하면 보람있게 수정할 수가 있을까 하고 方法的으로 살아야 한다는 뜻으로 통한다. 여기서 하나의 格率을 발견할 수가 있다.

「權勢에 밀려 사는 것은 비과학적 생활이고 日日新하게 사는 것이 과학적인 생활이다.」

즉 어제를 살았으니 오늘도 그 버릇에서 살고 또 그 버릇대로 내일도 살아간다는 것이 곧 타세에 밀려 사는 것이고, 매일 매일을 의욕적, 계획적으로 어제의 과오를 수정하며 사는 것이 곧 日日新한 생활이다. 요컨대 그날 그날 생활의 뜻을 창조해가며 사는 것이 과학적인 생활인 것이다. 좋은 버릇은 가꾸어 나가고 나쁜 버릇은 수정해 나가는 실천을 1일 24시간의 배치를 비롯한 노력에서부터 나날의 식생활, 의생활, 학

습생활, 취미생활까지를 규제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말이 있다. 「방법적 계획적으로 살면 인생도 살아볼 만한 것으로 된다.」

중요한 것은 방법이다.

方法的 探究 이상으로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을 것 같지 않다. 그럴 때 방법이란 곧 과학이고 과학적인 사고방식 없이 방법의 탐구가 가능할 까닭이 없다. 심지어는 사랑까지도 방법의 보람으로 충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부부의 생활이 충진하려면 그 방법이 충진해야 한다. 부자간, 모자간, 형제간의 사랑도 자연발생적으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방법적으로 가꾸어 나감으로 해서 무궁무궁한 길이와 높이로 심화되고 확대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이 정도로까지 생활이 높여지지 않고선 생활의 과학화라고 말할 수 없다.

애정은 情理의 문제이니 방법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나 이전 대단히 그릇된 생각이다. 情理는 論理的인 영양을 섭취해야만 자랄 수가 있다. 정리의 뒷바침 없는 논리가 不毛의 것으로 끝나듯 논리의 바탕이 없는 정리 또한 기름 없는 라이터처럼 될 위험이 있다. 이럴 때 「논리」란 곧 과학적인 방법과 同意語가 된다.

### ◎ 科學하는 마음을 익히는 데 努力

생활의 과학화가 과학적 기구를 잘 다룬다는가, 생활을 최선식 기계로서 이끌어간다든가, 하는 뜻만이 아니라는 것은 이상의 예로서도 알 수 있겠지만 나는 유럽에서 다음과 같은 생활의 국면을 보았다.

유럽사람들은 모두 그러하지만 특히 프랑스인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과 행동은 정평이 나 있다. 어느 소년에게 용돈 일만가를 주었더니, 그것은 내가 심부름을 시킨 댓가로 준 것이어서 그 부모들의 승락 아래에 받은 것이었는데, 그 소년은 돈을 받자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오랫동안 나오질 않았다. 나는 그 소년과 얘기를 하고 싶었던 심정으로 기다리고 있었는데 하도 나타나질 않아 물었다.

「그 애는 공부라도 시작했는가요? 그렇다면 기다리지 않고 돌아가야겠는데요.」

그러자 그 어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당신이 준 돈 때문에 그 애는 지금 바쁠 겁니다.」

무슨 뜻인가 했더니 그 소년은 지금 내게서 받은 돈으로 뭇을 하면 좋을까 하고 그 공리를 하고 있을 것이란 얘기였다.

아니나 다를까 조금 있다. 나온 그 소년은 뭇을 뻑뻑히 써 놓은 종이를 자기 어머니 앞에 밀어 놓았다. 그리고 한다는 말이——

「이것을 사면 저것을 못사겠고 저것을 사면 이것을 못사겠는데 나로선 판단할 수가 없으니 어머니께서 대신 결정해 줘요.」

내가 준 돈은 천프랑인데 그것으로서 살 수 있는 품목을 만들어 놓고 그 선정에 어머니의 힘을 빌리겠다는 것이었다.

나는 적이 놀랐다. 우리나라 소년 같으면 적당히 돈을 간수해 두었다가 필요가 있을 때 써 버리면 그만인 그런 태도일텐데 프랑스의 그 소년은 그러질 않고 천 프랑을 효과적으로 쓰는 방법을 연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대수로운 일은 아닌 것 같았으나 나는 그 사실을 그냥 보아넘길 수 없었다. 그리고 알아본 결과 프랑스의 소년소녀들은 뜻밖의 수입이 있었을 때 대개 종이의 연필을 든다는 것을 알았다. 생활의 과학화 쉽게 말해서 방법화는 이러한 사소한데서 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이 아닌가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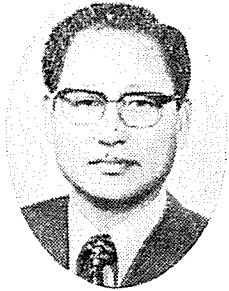
과학에서 혜택을 입는 것은 과학의 성과에서 보다 과학하는 마음에서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본다. 과학하는 마음에 익숙하면 우리는 50년을 살고도 150년 사는 보람을 다할 수가 있다. 과학하는 마음은 우리 생활을 합리화하고 편리화하고 위생화함으로써 能率化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꼭 말하고 싶은 것은 과학과 예술을 별도의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은 경향을 없애라는 것이다. 최고의 과학적 성과는 그냥 그대로 예술로 통하는 것이며 과학적인 치밀성이 없이 예술의 생산은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다. 과학과 예술은 뿌리는 같이 하면서 자기 다른 영역에서 피어난 인류의 精華이다. 어느 길을 택하건 인생의 완성이란 목표에 있어선 한가지이다.

그런 뜻에서도 생활의 과학화는 생활의 예술화와 통한다 즉 과학하는 마음은 곧 예술하는 마음인 것이다.

# 科學技術의 向上은 經濟發展의 밑거름

高度産業社會 이룩 위해 科學技術者 優待를



尹 能 善

〈韓國經營者協會專務理事〉

## ◎ 未知에의 挑戰

東洋人은 一般的으로 非科學的이라는 사실에 對해 西洋人들 뿐만 아니라 東洋人자신들조차도 肯定的인 것 같다.

그러나 東洋人은 先天的으로 哲學的 思惟와 自然的 順理를 옳은 것으로 생각하는 뛰어난 價値觀을 갖고 있다.

따라서 現代의 機械文明時代에서 나오된 開途國이라는 범주에 屬하는 나라들이 東洋에 많이 偏在해 있다는 側面에서 보면 이러한 價値觀이 物質文明에 뒤진 根源의 하나라고도 볼 수 있다.

觀察의 範圍를 좁혀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더라도 非科學的이라는 사실을 據證할 많은 材料가 있다.

우리의 言語중에는 意味上的 含蓄이 너무 많고 直線的이기보다는 迂回的이다.

우리 國民들의 時間觀念의 稀薄은 한때 ‘코리안타임’이라는 보통명사까지 만들게끔 하였지만 이제 經濟成長과 더불어 世界에서도 가장 바쁜 國民이 되었다.

이처럼 非科學的이라는 것은 무엇을 意味하는가? 筆者가 생각하기에는 科學的 두뇌나 素質, 즉 根本的으로 非科學的임을 일컫는 것은 아닌 것이라 보아진다.

다만 科學的 思考의 非訓練이라든가 生活化가 되어있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健全코 슬기로운 時代도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우리 역사상에 나타난 몇가지의 發明

품을 보더라도 그것은 世界的인 것들이었다.

그러나 그같은 훌륭한 創造力이 傳承되지 못했던 점은 儒敎思想을 바탕에 둔 社會的 背景이었다.

實用的 科學技術의 獎勵보다는 非實用的 思惟에 보다 價値를 둔 것이 決定的 影響을 주었다.

그래서 技術은 特殊階層의 專有物이었고 또 賤視되어 온 것이 事實이다. 이것만큼 科學民族의 創造力이나 未知에의 挑戰을 막는 逆機能으로 作用한 要素는 없을 것이다.

이제 80年代를 向하여 「高度産業社會化」라는 데에 國家의 發展價値를 두고 있는 시점에서 傳統의 脈絡속에 있는 逆機能 要素를 살살이 찾아내어 좋은 것은 保存하고 나쁜 것은 뿌리뽑아야 할 것이다. 여기에는 먼저 과감한 思考의 改革과 價値觀의 轉換이 있어야 한다.

이같은 當爲性의 提起는 우리 韓國人의 科學性과 創造力이 泯코 뒤떨어진 것이 아니고, 天賦的으로는 卓越하다는 것을 再認識할 必要가 있다. 先進國과 겨누어 온 우리 頭腦들의 評價를 보면 이는 너무도 明確한 것이다.

그러면 앞으로 개척해야 할 高度産業社會를 앞당기기 위해 우리는 어떤 姿勢를 갖고 臨해야 할 것인가, 熟考에 보아야 할 問題다.

## ◎ 國民科學化的 先行要件

첫째로 教育의 強化를 들 수 있다.

여기에서 強調되어야 할 점은 科學·技術教育이 餘他의 教育과 分雜되어서는 안된다는 점이다.



家庭教育은 말할 것도 없고 學校教育和 社會教育을 有機的으로 結合 遂行하여 科學의 社會化를 促進해야 한다.

科學의 社會化 없이는 科學, 技術教育이 試驗을 위한 手段으로 끝나 버릴 수밖에 없고 이의 生活化는 達成될 수 없다.

둘째 科學의 精神의 涵양을 위해서 幼年期부터 이 分野에 關心을 갖도록 해야 한다.

生活에서 發見할 수 있는 간단한 현상의 원리에서부터 이해시켜 어린이가 어린시절부터 關心과 문제 의식 그리고 해결하려는 노력 등 一聯의 善교육이 必要하다.

이러한 경우에 日常의인 것으로부터 쉽게 接近하게 함으로써 科學은 어렵다는 식의 공포심을 解消하여 能動的인 姿勢를 갖도록 誘導해야 할 것이다.

셋째 科學 技術用語의 普遍化를 積極 推進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世代間의 教育背景이 다르고 外來語의 氾濫과 語文政策의 變遷 등으로 階層間 世代間 使用 用語의 不一致로 意思疎通이 制約받는 경우가 많다.

이같은 用語의 斷層現象의 解決이 先行되지 않고서는 國民科學化運動의 擴散은 어려울 수밖에 없다.

斯界의 先覺者들의 숨은 努力이 必須條件이라 하겠다.

넷째 職業觀의 近代化가 이룩되어야 한다. 우리의 社會는 官崇尚 意識이 아직도 뿌리가 깊다. 最近 우리나라가 工業發展을 해오는 過程에서 科學者 技術者에 對한 認識이 크게 달라지고 많이 改善되었다고는 하나 全體 國民水準으로는 아직도 먼 길을 가야한다. 특히 이들의 報酬가 높아지고 또 앞으로 더 높아져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誘引策이 없다면 知識產業, 頭腦產業을 理想으로 하는 高度產業社會는 이룩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物質의 報酬의 增加에 併行하여 社會的 報酬의 增可가 뒤따르지 않으면 안된다.

이의 均衡이 確保될 때 向後 科學韓國을 짊어질 優秀한 人材를 이 分野로 몰아 輩出し킬 수 있을 것이다.

지나가는 중학생에게 「누구를 존경하느냐?」고 물었을 때 政治家나 行政家보다도 科學者나 技術者가 앞서게 된다면 비로소 科學人口가 늘고 深化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까지의 科學者 技術者에 대한 消極的 態度를 脫皮하여 劃期的인 政策的 社會文化的 風土造成이 緊要하다 아니할수 없다.

또 國民들의 科學意識을 일깨워 주어야 한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科學에는 素

質이 없다는 決定論的 思考를 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科學과 技術이라는 것은 단순한 技術 科學의 範疇에 局限되는 것은 아니다.

生活人으로서의 科學的인 消費行爲로 부터 時間에 對한 經濟的 認識등 科學의 問題는 도처에 깔려 있다.

모든 사람은 生活의 科學化를 위하여 끊임없이 努力하고 있음을 自覺하도록 할 것이며, 產業社會에서는 그것을 深化시키고 科學的 눈을 가져보자는 취지에서 出發되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의 效果의인 目的 達成을 위해서는 全國을 커버하는 電波媒體의 活用을 들지 않을 수 없다.

이의 效果的인 活用은 國民科學化의 目標을 앞당기게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開設되는 教育放送을 통한 視聽覺教育은 教育意識의 啓發이라는 次元에서 보다 平易하고 有益한 科學프로에 重點을 두었으면 한다.

### ◎ 맺는 말

이상에서 提示된 方向은 그 遂行의 主體가 어느 特定機關이 아니라 모두의 일이다. 商品의 發明이나 制度의 考案등은 모두가 日常의 必要에 依해서 創造되는 것이다. 平凡한 生活가운데서도 科學的으로 무엇인가를 살펴보면 놀랄만한 아이디어가 나오는 수가 많다.

이러한 점에서 全國民은 모두 偉大한 發明家의 資質을 가지고 있다 하겠다.

科學的 意識을 가지고 어떤 現象을 觀察하는 사람과 무심히 지나치는 사람과의 結果는 크게 차이가 난다.

이것은 바로 國力으로 連結된다고 보겠는데 이것이 없이는 先進國의 技術殖民地로 轉落하고 만다.

우리에게는 이렇다할 資源도 없다.

이제까지의 經濟發展은 豊富한 勞動力이 이끌고 왔지만 國家間 異質生産要素가 結合하는 過程에서 單純勞動力을 提供하는 役割만을 계속한다면 技術屬國의 위치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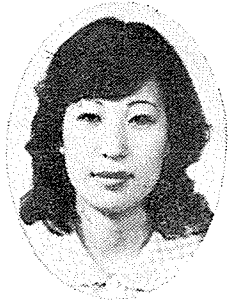
이러한 점에서 國民次元에서의 科學立志가 要求되고 自信과 意欲의 수반이 필요한 것이다.

先進 強大國의 新保護貿易主義는 날로 強化되고 後發 開發途上國이 바짝 뒤쫓고 있다.

우리의 目標은 修正될 수 없다.

이제 우리는 지혜롭게 狀況을 克服해야 한다. 이는 全國民의 科學化로 힘을 極大化해야 하고 그 힘으로 벽을 뚫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알아야 할 것이다.

# 文明의 利器는 使用할 줄 아는 者에 惠澤



現代人は 손쉬운 技術하나쯤 習得해 놓도록

權 兌 映

〈會 社 員〉

◎ 複寫器 使用할 줄 모르는 會社員은 곤란

어느 科學者는 한나라의 工業水準(科學技術水準)을 歷史的 進展의 順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각단계에 해당하는 主從製品의 部分品數로 工業水準을 점쳤다. 즉 1단계인 原始工業時代는 호미, 낫, 칼을 비롯한 농구와 잡화등 극히 간단한 日常用品이 主從製品이었으므로 이의 部分品數는 열개, 즉 10<sup>1</sup>으로 메기고 그리고 2단계는 輕工業時代로 10<sup>1</sup>~10<sup>2</sup>時代, 이런 식으로 헤아려서 현재 우리나라는 10<sup>4</sup>時代인 重化學工業時代에 돌입했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知識集約時代인 10<sup>5</sup>정도의 수준을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정말 실감나는 비유이다. 수치로도 나타났듯이 해방이후 우리나라는 3次에 걸친 經濟開發計劃을 통해 눈부신 經濟發展을 이룩해 왔다. 특히 科學技術의 發展은 우리의 經濟發展에 어느 分野 못지 않게 가장 核心的인 役割을 담당해왔고 경제발전에 關鍵이 되어 왔다.

이제 우리의 과학기술도 어엿하게 국가경제발전에 主役을 맡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衣食住生活은 물론 社會生活에까지 모두가 발달해가는 科學技術의 혜택을 누리지 않는 것이 없다. 단한시라도 과학기술을 外面해서는 보다 지혜롭고 생산적인 生活을 영위해 나갈

수 없게 되었다. 우리들 손이 닿는 어느 한 곳에서라도 과학적인 知識이 필요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는가?

그러나 이러한 科學과 技術을 우리들은 어느 정도나 알고 있으며 실생활에 얼마나 이용하고 있는지?

만물박사라고 하는 computer라는 것이 있다. 고도의 과학기술의 產物인 computer의 조작으로 인간이 인공위성을 타고 영원히 미지의 세계로 물려 있으리라고 생각되어지던 달과 랑데뷔하기도 하고 computer에 의해 만들어진 로봇트가人間이 할 일을 대신해 주기도 한다. 미국에서는 우리에게 매일 세상사와 생활정보를 알려주는 신문도 computer에 의해 全 製作過程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과학기술의 혜택은 더 이상 나열 안해도 될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computer를 이용하여 필요한 정보를 신속히 얻기 위해서 computer를 사용하는 기업이 늘고 있다. 정보검색에서부터 인사관리에 이르기까지 computer는 우리 기업에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되었다.

어느 회사에서는 computer로 하여금 직원들의 근무성적을 메기게 하여 인사에 반영시킨다고 하니 바야흐로 우리나라도 科學時代에 접어들은 것 같다.

또 심지어 어느 computer학원에서는 자기가

원하는 理想의인 배우자를 찾아 주기도 한다. 물론 PR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만 computer가 맺어준 부부가 이상적인 부부관계를 맺게 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computer 결혼상담소가 출현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는가?

우리는 이렇듯 과학시대에 살고 있으며 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생산물에 의해 윤택한 생활을 누리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문명의 혜택도 누리는데 耆가 제대로 이용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한낱 그림의 떡일 것이다. computer가 아무리 몇초만에 원하는 해답을 제공하고(물론 computer 작동에는 전문적인 과학지식과 고도의 기술훈련이 필요하지만) 복사기가 몇분만에 몇백장을 그대로 복사해 낸다해도 사용자가 제대로 이용을 할 줄 모르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현대사회는 많이 달라졌고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 가정주부들도 직장에 나가 좀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등본서주하고 있는 이때 일일이 타인의 힘을 빌어야 한다면 이 바쁜 세상을 어떻게 영위해 나가겠는가. 과학과 기술은 현대사회를 살아가는데 있어서 반드시 과학자나 기술자가 아니더라도 웬만한 과학적 지식, 손쉬운 기술을 습득해 봐야 하겠다.

### ◎ 웬만한 公文은 스스로 타이핑 할수 있어야

직장에 나가는 사람이라면 으레 한번씩은 결재문서나 공문을 기안할 기회가 주어진다. 그런데 문서는 기안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기안한 문서를 타이핑하는데 있다. 아무리 명필이라도 결재문서는 타이프로 정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울드미스트 타이피스트의 히스테리아 어떻게 간에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양을 떨어야 했던 경험들이 누구나 한번씩은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타자수 손에 넘어갔던 여기서 또 한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만약 타자수의 타이핑 실력이 1급이라 하더라도 한문 실력이 제로라면(한문으로 기안했을 경우) 기안자는 타자수 옆에 붙어 앉아서 일일이 한글로 註를 달아 주어야 한다. 자 가까이로 아양을 떨어 타이핑된 문서를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니다. 기안자 자신이 원문대로 타이핑되었는가 교정을 봐야 안심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문서 하나에도 얼마나 많은 시간과 정열을 빼앗겨야 하는가. 그래서 요즘 웬만한 회사에서는 남자 직원들한테도 타자교육을 시키고 있다고 한다. 그 많은 서류들을 일일이 타자수의 손을 거치지 않고 자신이 직접 타이핑하도록 해서 이중의 시간 낭비와 인력소모를 없앤다는 것이다.

또 요즘 각 회사마다 자동차 단체교습이 유행이라고 한다. 자동차 운전기술을 습득하기 희망하는 직원들을 한데 모아서 편리한 시간에 강사를 초빙해와 염가로 실습을 시킨다는 것이다. 그래서 웬만한 기업체 쳐놓고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지 않은 직원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렇듯 과학과 기술은 우리 사회, 우리 생활에 보급 침투되어 가고 있다.

### ◎ 企業主는 科學化經營 피하도록

그러나 아직도 과학기술은 우리와는 거리가 먼 학자들만의 학문이며 엔지니어들만이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는 이들이 많다. 과학과 기술이 바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요즘 심각하게 야기되고 있는 환경오염 문제를 보더라도 알 수 있다.

無知한 企業主들은 자신의 목숨을 자신들이 좀 먹어 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모르고 있다. 工場에서 내보내는 폐수가 우리의 젖줄인 강물을 오염시키고 있으며 공장굴뚝에서 뿜어대는 매연이 바로 우리의 생명을 단축시키고 있는데도 말이다. 우리의 목숨을 좀 먹고 있는 오염원이 바로 자신들의 공장이며 회사라는 것을 아는 기업주가 얼마나 되며 또 그것을 자각하고 그에 대한 해결책을 강구하려는 기업주가 얼마나 될까. 더군다나 공장을 세우기 전에 건축비에 공해방지 시설비를 추가로 계산할 수 있는 정도의 기업주가 과연 우리나라에 몇이나 될까. 우리 모두 진지하게 생각해 볼 문제이다. 그러나 공해방지 시설은 고사하고 비위생적이고 비과학적인 작업환경으로 직업병을 유발시키는 일

이 허다하다. 작업대의 높이라든가 위치, 조명 등 조금만 신경을 쓰면 직업병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고 몇배의 능률을 향상시킬 수 있는데 기업주들의 무지로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문제들이 외면당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업도 많은 성장을 했다.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추구하고 몇백만불의 수출실적에 급급하는 시기는 이미 지나갔다. 우리의 기업도 이제는 어엿하게 자신의 문제점을 반성해 볼 시기가 왔다고 본다. 많은 기업들이 經營의 合理化, 經營의 科學化를 추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非合理的이고 非科學的인 경영방식을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 예전의 주먹구구식의 경영방식에서 벗어나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기업경영이 이루어져야 했다.

### ◎ 科學的인 國民思考형성 시급

요즘 TV 3局에서 生活科學이라는 프로그램이 신설되어 정부에서 제창하고 있는 全國民의 生活의 科學化運動에 경쟁이라도 하듯 생활의 지혜를 소개하고 있다. 이를 보면서 느낀것은 하나같이 합리적인 가정 생활에 초점을 맞추고 단편적인 생활상식만을 다루고 있는 점이다. 물론 전기제품의 올바른 사용법도 중요하고 洗劑의 올바른 선택도 중요하지만 더 근본적인 것은 우리의 意識構造의 변화이다. 정부에서 아무리 전 국민의 생활의 과학화 운동을 전개하고 TV에서 이를 옹호하고 나서도 국민들의 의식속에 과학과 기술이 심어지지 않는다면 한낱 소귀에 경읽

기로 그칠 것이다. 우리 생활이 윤택해진 만큼 사회가 발전한 만큼 거기에 부응하는 우리의 의식구조가 科學的인 思考를 형성해 나가지 않는 한 전 국민의 생활의 과학화는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살아있는 과학교육이 수반되지 않는 한 전 국민의 과학화는 더욱 더 어려워 질 것이다. 꼬마들의 의식 속에 과학을 심어주어 그들의 입에서 장래 희망이 “科學者가 되는 것”이라는 말이 나올 때 진정 전 국민의 과학의 생활화가 싹틀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매일같이 김동원통보관의 일기예보를 귀담아 듣고 있지만 막상 기상도를 보고 일기를 예보해 보라고 하다면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구호로 외치는 과학화운동이 아닌 생활속, 사회속에 과학하는 마음을 심어주어야 한다.

과학과 기술이 나타낸 결과 뿐만 아니라 원초적인 문제를 국민들이 쉽게 알아 들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쉬운 용어와 시청각 재료를 동원하여 필름으로 엮어서 보여준다면 PPM이 몇이라는 수치적인 나열보다는 정말 수궁하며 깨달을 수 있는 효과적인 과학화운동의 전개 방안이 이루어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전 국민의 생활의 과학화는 과학적인 의식구조, 합리적인 사고방식이 거름이 되어 올바르게 科學을 이해하고 技術을 습득할 때 바로 그때부터 과학의 생활화, 과학의 사회화가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 本業 외에 第2 技術 攄得 필요



형광등의 故障原理 정도는 알고 있도록

白

姬

〈主

婦〉

### ◎ 손쉬운 것은 집에서 고칠 줄 아는 사람되자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은 자기의 基本欲求를 充足시키기 위해 周圍環境을 支配하려고 끊임없이 努力해 왔다.

그러한 努力에서 얻은 成果의 대부분이 科學技術의 發展으로 나타났으며 그것이 무수히 많은 일생활의 道具를 마련해 주었으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原理나 構造는 고사하고 누구에 의해서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조차 알려고 하지도 않는다.

실트 科學技術을 自己生活의 手段(?)으로 삼는 사람을 제외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利用하고 대하는 科學技術의 產物을 다 시한번 關心있게 쳐다볼까?

原理나 構造를 모른다고해서 사용을 못한다거나 더우기 무엇이 잘못됐다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科學技術의 產物을 利用하다 보면 여러가지 불편한 점이나 부작용이 있기 마련인데 그럴때마다 그 즉시 修正(?)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 아니고 보면 남의 힘을 빌어(물론 응당한 대가를 支拂해야겠지만)야 할 것은 뻔한 일이다.

그것에 대해 약간의 지식만 있었어도自己能하게 할 수 있는 일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다. 그것의 대부분을 가만히 앉아

남에게 시키고 있어 문제다.

며칠전 White color씨와 結婚한 친구의 집에 놀러 갔을 때의 일이다.

그는 나의 옛 직장同僚로 業務가 끝나면 해지는 夕陽의 退勤길을 걸으며 未知의 白馬탄 왕자를 꿈꾸던 단짝이었다.

『애! 우리 그 사람은 형광등하나 끼우지 못해……』하면서 조금은 푸념 비슷한 말투로 남편을 나무라는 것이다.

『바쁜 生活에 얽매이다 보니 그렇겠지, 설마 형광등하나 끼우지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라는 내말에 친구도 首肯을 하는 눈치더니 그래서 近處 전파사에서 사람을 불러와 형광등열의 조그마한 전구(이것이 스타터라는 것을 後에 알았다)와 형광등을 갈아 끼우고 材料들의 값에 덧붙여 수고비조로 얼마를 주어야만 했었던다.

나중에 누군가에 의해 들은 얘기이나 형광등은 전구와 달라서 빛을 내는 필라멘트라는 것이 끊어지는 일은 거의 없고 스타터와 형광등 內部 속에 들어 있는 안전기의 異常으로 형광등이 못쓰게 된다고 한다.

아름든 여러가지 면에서 볼 때 안전기와 스타터에 故障이 없으면 형광등은 不良製品이 아니. 고쳐야 거의 故障날 염려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친구는 갈아 끼우지 않아도 될 형광등을 갈아 끼웠을지도 모를 일이다.

이와 같은 일이 우리 주변에 非—非再하다. 퓨즈를 갈아 끼워 놓고는 故障나지도 않은 TV 진공관을 갈아 끼웠다고 기척원색 요구하고는 패재를 부르는 악덕업자를 생각할 때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치욕적인 無知가 問題인 것이다.

어떻게 해서인지는 모르지만 요즘에는 누구나 할 일이 딱 固定되어 있다고 斷定지어 놓고는 自己와 直接的으로 關係가 없는 일에는 손을 대지 않으려고 하는 習性이 몸에 배어 있는 것 같다.

요즘에는 休日에 男子가 마당에서 푹딱거리며 무엇을 만들거나 고치는 소리를 들어 보기가 힘든 세상이 되어 버렸다. 휴일날 어떻게 하면 좀 더 便宜히 될 수 있을까 하는 窮理에 빠져있기가 일쑤고 또 어떻게 하면 이 物價亂局에 언제 어디에나 華麗하게 陳列된 各種 物品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을까 하는 安逸한 생각이다.

外國의 境遇를 보면 누구나가 自己本業 이외에 무엇이든지 한가지 技術을 꼭 갖고 있다고 한다.

회사 經理社員이 木手技術을 갖고 있거나 혹은 예쁘장한 女秘書가 TV修理技術 資格證을 갖고 있는등 우리로서는 想像도 못할 일이 있는 貌樣이다.

또 여러가지 家具나 놀이기구들을 우리들은 直接 사오지만 그들의 境遇는 하나하나 자기 스스로 끼어 맞추고 자르고 하여 完製品을 만들 수 있는 키트를 팔고 있어 일부 부유층이 아니고서야 完製品을 사는 일이 거의 없다고 한다.

만약 그들이 형광등 하나 갈아 끼우지 못한다는 소리를 들으면 도대체 學校는 近處에도 못가 본 無識한 사람이라고 말할 것이다.

사실 우리는 學校教育 십여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理論爲主의 教育에서 한시바삐 탈피하여야 할 때가 왔다고 보는 것이다.

### ◎ 배운 知識으로 아이디어 開發

학교에서 배운 것을 基礎로 하여 조금만 머리를 쓰면 돈을 節約하고 또 自己의 生活을 훨씬 빛나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내는 生活의 아이디어를 수집해 놓았다가 살림에 利用하고 男便은 休日날 아이들과 같이 마당에서 웃고 떠들며 집안의 여러가지 故障난 것을 고치고 하여 아빠로서의 또 다른 一面의 힘을 誇示한다면 얼마나 근사한 이상적인 가정이 되겠는가?

항상 辯明은 <바쁜 生活에 暇배이다보니……>이다.

조금이라도 休息이 찾아오면 들어 누워 TV를 보거나 별로 재미도 없고 有益하지도 않은 것에 소일하고는 가까운 時間을 無意味하게 보냈구나 하고 후회하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이다.

적어도 그 시간에 할 수만 있다면 家族을 기쁘게 하고 貯金통장에 더 많은 돈을 貯蓄할 수 있는 일이 周圍에 없을까?

科學의 生活化란 形而下學의인 學問에 基礎를 두고 그것을 研究하여 우리 生活에 利用한다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또한 商業界나 人文界를 나온 사람이라고 해서 못할 일도 아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원리나 뉴우톤의 만유인력의 法則이 필요한 것도 아니다.

自己生活과 家庭을 위한 조그마한 생활의 아이디어가 필요한 것이다.

周邊에 늘 일어나고 있는 손이 必要한 곳에 우리가 알고 있는 知識을 利用하고 또 아이디어를 開發하여 비록 작은 일이지만 創造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보람된 일이 어디 있을까?

해서 국가적 次元으로는 科學技術開發 10個年計劃에 副應한다는 自負心을 갖을 수도 있고 적게는 하나의 새로운 가정을 꾸미는 사람으로써 알뜰하고 誠實한 抱負를 키울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다.

或是 또 누가 알겠는가?

아이디어를 應用하고 開發하다 보면 즐지에 億萬長者가 될지, 주택부권이 당침되기를 바라는 것보다 알뜰하고 살뜰한(?) 投機라고 한다면 科學徒다운 말이라고 해줄까……?